

史上名人의 二十歲；

茶山先生의 早年工詩[下]

崔益翰

茶山先生은 當時一般學堂의 例에 依하여 幼時부터 □書와 作文에 힘썼다. 十五歲前 卽 그의 夫人洪氏를 맞으러 漢陽에 가기 前까지는 廣州馬岷里 本家에서 그의 아버지께 經史와 古文을 읽고 詩文을 □作하기에 부지런 했었다. 그리다가 十五歲에 이르러 □陽에 住居한 以後로 先輩 錦帶李家煥과 姊夫李承□ 등을 從□하여 星湖李先生의 □□을 얻어 읽고 비로소 學問의『新大陸』을 發見하였다.

그러나 先生이 西學에 直接關係한 것은 二十三歲의 일시오. 二十勢頃에는 星湖學 以外에 依然히 例의 經史諸書의 □□과 古詩文及其科體詩文의 練習이 그의 主的 過程이었다.

그러나 先生의 年□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 □悟하여 四歲에 文字를 배웠다. 七歲에 五言詩를 지었는데 그중에 『小山□大山□近地不同』이란 名句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詩句를 보고 奇異히 여겨 가로대 分別과 計量에 밝으니 將來에 當당히 算數와 曆法에 能□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先生의 自찬찬□에 依하면 九歲에 母喪을 當하고 十歲에 비로소 課程을 □□하여 五年동안 家庭에서 배운바 詩律로서 남의 稱道를 받았다 하였으니 先生은 十五歲頃에 벌써 詩를 잘했고 二十歲頃엔 훌륭히一家詩를 이루 었던 것이다.

懷東嶽(金剛山)

東嶽絶殊異,
紫嶠疊青嶠.
雕鏤入纖微,
神匠洩機巧.
仙賞委瀛壖,
幽姿獨窈窕.
惜無棲隱客,

瀟灑脫塵表.

이는 先生十四歲作으로서 詩集의 第一首이다. 字句의 磨練이 그의 夙成을 보이지 않는가.

乘舟赴漢陽
旭日山晴遠,
春風水動搖.
岸廻初轉舵,
湍駛不鳴橈.
淺碧浮莎葉,
微黃著柳條.
漸看京闕近,
三角鬱岿峩.

이는 十五歲에 夫人洪氏에 장가들여고 漢陽으로가는 舟中에서 지은 詩이니 前首에 比하여 훨씬 練熟되지 안했는가

同友人李德操, 乘舟入京
啼樹黃鸝送客船,
水邊村落始朝煙.
春深兩岸看紅雨,
風靜中流俯鏡天.
蘇軾才高談水月,
李膺名重若神仙.
深知拙劣終無賴,
欲把殘經報昔賢.

이는 先生의 二十歲詩이다. 詩集에 나타난바 二十歲作이 數十首되나 이것을 先擇하여 讀者에 보인것은 詩의 自體보다도 詩의 題目을 取한 것이다. 李德操는 누구나하면 當時 少年博學으로 有名한 曠庵 李櫟이니 先生의 唯一한 畏友였다. 그 後 二十二歲에 先生은 曠庵으로 더부러 退溪, 栗谷의 四七理氣說에 對하여 張皇한 講論이 잇엇고 翌年 二十三歲 卽 正祖八年(1484)에 또한 그와 함께 漢江에 배를 띄워 廣州斗尾에 내려와서 그로부터 先生은 一場說敎를 들엇으니 이는 東洋의 文化圈中에선 듣도 보도 못하던 天主教理와 밀 西洋科學이었다.

이것으로 因하여 先生은 드디어 西學의 信徒가 되엇었다. 그러나 曠庵은 그후 얼마 안되어 夭死하였는데 正, 純時代의 西學一派는 대개 모다 曠庵의 學徒이었다. 純祖元年 辛酉大邪獄이 일어나매 曠庵의 姓名은 邪教의 首唱者

로서 罪□에 가끔 오르나렸던 것이다.

夏日荅川雜詩

磁甕初鳴酒氣香，
水邊閒喚賣魚郎。
只消一斗新春麥，
賒得重脣二尺強。

×

金色山梨半面黃，
含消正待十分香。
高枝已被烏兒啄，
仙味輸渠第一嘗。

×

溫祚宮墟數里阡，
年年只作種瓜田。

(卽廣州古邑)

要沾酒喝憑誰買，
會向蘆洲舴艋邊。

×

雨歇沙堤落漲痕，
崩莎臥柳露全根。
試携笊箸隨鄰叟，
櫓取魚兒到日昏。

×

絳帖重摹一兩章，
書樓紅照已斜陽。
小奴新獻青藜杖，
行取松陰半晌涼。

×

連宵雨脚水東西，
潦漲潮來上柳堤。
門外刺舟新有響，
帆竿高與屋檐齊。

×

野老齊來約剪麻，

斫柴堆石近溪窠.

草堂自此無遮翳,

全露前村八九家.

苕川은 先生의 家江이다. 上記 七絶은 詞致가 淸麗하고 神韻에 □□하야 一家를 이룬만큼 누구라도 二十歲의 詩로 認定키 어려운바이다. 先生은 이 後로 實學에 □精하고 詩工에 對하여는 以上더 苦心치 안헸다. 思想의 進展을 따라 詩의 內容은 勿論 充實해졌지마는 詩의 □格에 잇어선 二十歲와 그 後가 別般달음이 없엇다.